

- 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세가 약한 '아리수' 품종의 성숙기 수세 증진 방안 영농활용함 - 평창지역의 성숙기가 해발이 낮은 양양지역에 비해 15일 정도 늦었음에도 양양지역의 성숙기는 경북지역보다 다소 늦었음 - 품종별 수확과일을 상온, 저온, 저온+1-mcp 처리로 저장 특성을 평가함 - 조사 지점의 해발 고도(200m, 560m) 차이에 의한 개화기 3~6일 차이, 숙기 10일 내외의 차이가 있음 - 경남의 저지대(해발고도 200m 이하)에서는 이상고온인 해에 일소 피해과 및 낙과가 적은 '아리수', '황옥'이 적합한 품종으로 판단됨 - 녹황색 품종별 낙과는 '그린볼' 8월 하순, '황옥' 9월 상순부터 시작되었으나, '황옥' 품종은 10월 하순까지 누적 낙과율이 10~20%정도에 불과함 - '황옥'의 적숙기 이후 과일특성을 보면, 10월 하순까지 과중과 당도는 증가하고, 식미가 양호하였음 | |
|---|--|